

‘평화의 소녀상’ 따뜻한 겨울나기

주민들이 한 땀씩 모아 만든 망토 전달

“역사적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위로 되길”

‘평화의 소녀상’이 주민들의 정성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광주북구소녀상 평화인권추진 위원회는 23일 오전 ‘평화의 소녀상과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북구청 앞 평화의 소녀상에 주민 10여명이 텔실로 직접 만든 망토, 목도리, 털모자를 둘러줬다.

이날 행사에는 일제 근로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조영대 용봉동성당 주임신부, 정달성 추진위원장, 선승연·이정철 북구의원, 유창민 광주 노동자상 서포터즈 운영팀장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소녀상의 손부터 상반신 전체를 두른 망토는 북구 주민 10여명이 한 달 간 한 땀 한 땀 짠 조각들을

모두 이어 만들었다. 이날 주민들과 함께 한 양금덕 할머니는 망토를 소녀상 몸 전체에 두른 후 옷핀으로 고정했고 추운 겨울을 나도록 모자도 써워줬다.

소녀상 모자와 같은 고동색 겨울모자를 쓴 양금덕 할머니는 ‘쌍동이 같다’는 학생들의 말에 “마치 나를 보는 것 같다”며 웃은 후 소녀상의 손을 꼭 잡아줬다.

양금덕 할머니는 “따뜻하게 모자, 망토를 두른 소녀상을 보니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다”며 “몸도 마음도 추운 겨울에 마음이 라도 따뜻해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영대 신부는 “평화의 소녀상에 목도리를 둘러주는 것과 같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역사적으로



고통받고 희생된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분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성탄절을 맞아 아프고 소외된 이들을 되돌아보자”고 당부했다.

행사 직전 북구소녀상 평화인권추진위원회는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양금덕 할머니와 대학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진우 5·18 기념재단 연구실장을 초청, 평화인

권강연을 진행했다.

박진우 연구실장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우리나라가 친일잔재를 제대로 청산했는지 피해자들의 아픔을 잘 보듬어줬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1



영동와인터널, 전 직원 소믈리에 자격 취득

충북 영동군은 와인터널에 종사하는 직원과 담당 공무원이 소믈리에 자격을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가 주관한 4회 소믈리에 자격검정에 7명이 응시해 전원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는 영동와인터널 운영을 총괄하는 헬링사업소 김효기 운영팀장, 사업소에 상주하며 관광지 운영관리 컨설팅을 맡고 있는 LH 총괄관리사업단 유원석 차장, 와인판매 민간위탁 운영업체인 영동

디어와인유통 소속 직원 5명 등이다. 소믈리에(Sommelier)는 고객에게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 주고 서빙하는 사람으로 와인리스트 작성, 와인구매와 저장, 와인의 맛을 시음·평가하는 전문관리자를 말한다.

고객의 취향에 맞는 와인을 추천해 주고, 맛과 특성을 알아 그 와인에 대한 설명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됐다.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손님을 모실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뉴스1

다누리 아쿠아리움 “물고기와 메리 크리”

국내 최대 규모의 민물고기 생태관인 충북 단양 다누리아쿠아리움이 오는 24~25일 ‘물고기도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겨울 느낌 물씬 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23일 단양군에 따르면 16종 6000여 마리 물고기가 살고 있는 대인수조에는 2.7m 높이의 대형 트리리를 비롯해 다채로운 수조 장식으로 꾸몄다.

또 대형 스틸리본 선물상자와, 유광볼, 실크볼 등 다양한 장식들이 은색 빙어들과 어우러져 화려

함을 선사한다.

수중터널과 원통형수조에 설치된 스노우 장식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크고 작은 수조는 북극곰, 팽귄 등 동물 모형과 함께 이글루 피규어, 눈사람, 산타, 루돌프 등 갖가지 조형물로 채워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지하 2층 동선에 위치한 크리스마스 문구가 적힌 네온사인 포토존은 관람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붙잡는다.

뉴스1

인천시립교향악단, ‘제야음악회’ 연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10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풍성한 레퍼토리로 ‘제야음악회’를 연다.

이병숙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이 공연의 첫곡은 차이코프스키의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중 ‘플로네이즈’이다. 이어 소프라노 정해지

와 테너 이범주가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을 공연한다.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혜지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의 제 이름은 미미입니다,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왈츠를 선보인다.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은
범죄행위이며,
미래까지도 같하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
재산은 물론 행복, 꿈, 미래까지 영영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보다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세요!